

뉴스 경제/과학 기업

지역 철강 물류 선진화의 침범

[철강유통의 선두주자 오성철강(주)]

철근 유통·가공규모 전국급

유럽식 기계설비 도입 추진, '학풍' 후원등 사회공헌활동

김대환 기자 아, ... : °0+ 5- 9월... 월... 일 금요일 제8면 승인시간 : 2012년 08월 09일 20시 28분



‘신뢰와 사랑, 투명·정도경영으로 철강 **물류** 선진화를 선도하는 기업’

대전지역에 뿌리를 둔 철강자재 물류 전문 향토 토착기업 오성철강주(대표 [이사](#) 류재욱)의 기업가치이다.

오성철강은 지난 1974년 중부철재상사로 창업한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철저한 품질관리와 정직한 경영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한 철강(철근, 형강, 파이프, 각관) 유통 전문기업이다.

에만 재투자하며 철근 외길 경영의 길을 걷고 있다.

이와 함께 오성철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러차례 모범납세자 표창을 수상했으며 대덕구 ‘학풍’ 후원, 성우보육원 어린이 대상 학력신장 프로그램 ‘오성철강 아카데미’ 운영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류재욱 대표이사 역시 대선상공회의소 부회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 세정자문 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류재욱 대표는 “신뢰에 바탕을 둔 정도경영과 한눈팔지 않는 외길 경영으로 국내 철강물류 선진화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면서 “전국 최고의 철강물류 선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산과 A/S까지 최상의 노하우를 갖추고 정도경영을 통해 지역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